

# 道通眞境의 實踐的 背景

朱 賢 哲\*

目 次	
I. 서론	2. 신인조화
II. 도·도통의 개념 및 특성	3. 해원상생
1. 도	IV. 도통진경을 위한 수도방법
2. 도통	1. 수도공부
3. 도통진경	2. 주문
III. 도통진경의 전제조건	3. 포덕과 교화
1. 음양합덕	V. 결론

## I. 서론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종지(宗旨)는 주지하다시피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논점(論點)으로 삼으려고 하는 도통진경은 지상에서의 이상세계(理想世界) 건설을 말하는데, 이 세계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의 토대위에서만 가능하다. 음과 양이 덕으로 합해지고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천·지·인 삼계에 쌓이고 맺혔던 모든 원한(怨恨)이 풀려 상생(相生)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도통진경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 이 세계는 전인류가 추구하고 염원하는 궁극적(窮極的)인 세계로서 반드시 이

\* 문학박사

루어내야만 하는 세계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은 도통(道通)과 진경(眞境)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도통(道通)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道)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도(道)·도통(道通)·도통진경(道通眞境)의 순(順)으로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위에서 잠시 언급한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서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의 법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를 실현(實現)시킬 수 있는 수도(修道) 방법에 대해서 논의(論議)될 것이다. 수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수도공부(修道工夫), 주문(呪文), 포덕(布德) 및 교화(教化)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Ⅱ. 도통진경의 개념 및 특성

### 1. 도(道)

도(道)는 본래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였으나 여기에 추상적(抽象的)인 해석이 가미되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道理)나 원칙(原則) 등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도(道)는 우주운행(宇宙運行)의 법칙(法則)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동양인(東洋人)의 정신적(精神的)·물질적(物質的)인 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도(道)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삶과 우주운행의 법칙 등으로 발전되면서 시대(時代)와 지역(地域), 그리고 학자(學者)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명되어 왔다.

『중용(中庸)』에는 “천성 그대로 행하는 것을 도(率性之謂道)”<sup>1)</sup>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성(天性)이라함은 양심(良心) 곧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인간의 본성(本性)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성(本性)은 본래 순수(純粹)하였지만 인간의 욕심(慾心)과 나약(懦弱)함, 인위적(人爲的)인 행위(行爲) 때문에 혼탁

1) 『中庸』首章

(混濁)해져 그 본성(本性)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본성(本性)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적(儒教的)인 관점에서 볼 때, 도(道)는 인간본성(人間本性)의 근원으로서 인간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道)를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교(儒敎)에서는 도(道)의 도덕적(道德的)인 면을 강조하여 일종의 생활규범(生活規範)이나 인간의 가치기준(價値基準) 등으로 삼았다.

『주역(周易)』 계사상전(繫辭上傳)에는 “한번 양하고 한번 음하는 것이 도다(一陰一陽之謂道)”<sup>2)</sup>고 하였다. 이것은 음(陰)과 양(陽)이 고정불변(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음(陰)이 양(陽)이 되기도 하고 양(陽)이 음(陰)되기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도(道)란 우주만물이 생성(生成)·발전(發展)·소멸(消滅)하는 원리와 법칙을 말한다. 우주(宇宙)가 우주(宇宙)된 본연(本然)의 법칙(法則)인 것이다. 이를테면 음양(陰陽)이 합덕(合德)하여 낮과 밤이 교차하고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과 1년 12달, 24절후가 순환하는 법칙을 말한다. 또 장자(莊子)는 도(道)라는 것은 “자체가 본원(本源)이며 근본(根源)이니 아직 천지가 있기 전에 예로부터 진실로 존재해 왔다(自本自根 未有天地 自古以固存)”<sup>3)</sup>고 말했다. 노자(老子)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고 하였다. 이 두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도(道)라는 것은 천지가 있기전에 존재했던 우주만물의 근원으로서 도법자연(道法自然) 즉, 도의 본성이 곧 자연(自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도(道)에서 비롯된 존재로서 도(道)에로 회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本性)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도교(道敎)에서의 도(道)는 우주만유(宇宙萬有)의 본체(本體)이면서 형태지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실재(實在)로서의 도(道)를 의미한다. 인생(人生)의 모든 행위(行爲)와 자연계(自然界)의 섭리(攝理), 이 모든 것들이 도(道)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불교(佛敎)의 경우 진리(眞理) 자체를 도(道)라고 보았다. 불교(佛敎)에서의

2) 『周易』 繫辭上傳 5章

3) 莊子, 『南華經』

도(道)는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를 들 수 있다. 사성제(四聖諦)란 고제(苦諦)·집제(集諦)·멸제(滅諦)·도제(道諦)를 일컫는 것으로서, 인생고(人生苦)를 초극해서 궁극적인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생존의 본질은 고(苦)이고 이 고(苦)의 원인은 갈애(渴愛)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 곧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 항상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이 집제(集諦)의 의미이다. 멸제(滅諦)란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이니 곧 열반(涅槃)의 세계이다. 그렇다면 열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제(道諦)이다. 도제란 인간고(人間苦)를 없애는 길로서 팔정도(八正道)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 인간은 이 8가지의 도(道)에 의해서만 열반(涅槃)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불교의 종교적(宗敎的)인 행위(行爲) 뿐만 아니라 도덕적(道德的) 실천(實踐)을 의미하기도 한다. 팔정도(八正道)란 올바른 생각(正見)·올바른 사유(正思)·올바른 말(正語)·올바른 업(正業)·올바른 생활 수단(正命)·올바른 신념(正念)·올바른 노력(正精進)·올바른 마음 가짐(正定)을 일컫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이들 세 종교에서는 도(道)를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공통점(共通點)은 도(道)를 회복한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道)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도(道)와 하나가 됨으로써 현실의 불공평(不公平)하고 불합리(不合理)한 점을 극복하여 절대불변(絕對不變)의 진리 속에서 참다운 자유(自由)와 영생(永生)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도(道)를 보는 관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렇다고 대순사상(大巡思想)이 유(儒)·불(佛)·선도(仙道)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지(天地)의 허무(虛無)의 기운을 받아 선(仙)이 포태(胞胎)하고, 천지의 적멸(寂滅)의 기운을 받아 불(佛)이 길러내고, 천지의 이조(以詔)의 기운을 받아 유(儒)가 욕대(浴帶)한다. 관왕(冠旺)은 허무, 적멸, 이조를 통솔한다(受天地之虛無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冠旺 兜率虛無寂滅以詔).”<sup>4)</sup>

대순사상(大巡思想)의 도(道)는 관왕(冠旺)의 도(道)를 의미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관왕(冠旺)은 유·불·선도의 기운인 허무(虛無)·적멸(寂滅)·이조(以詔)를 통솔하여 완성(完成)으로 이끈다. 이렇게 볼 때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말하는 도(道)는 유·불·선도의 정수(精髓)를 뽑아 창조적(創造的)으로 완성한 도(道)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대순사상(大巡思想)에 나타난 도(道)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대순지침』은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sup>4)</sup>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도(道)를 음양(陰陽)으로 간주하므로써 우주 만물(宇宙萬物)의 근원을 도(道)로 본다는 점이다. 인간도 이 우주본연(宇宙本然)의 법칙(法則)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천성(天性)인 인간 본성(本性)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전경』에서는 “원형이정은 천지의 도(道)고 인의예지는 사람과 신의 도(道)다(元亨利貞天地之道 仁義禮智人神之道)”<sup>6)</sup>라고 밝히고 있다. 원형이정은 천도(天道)의 사덕(四德)이다. 계절(季節)로 보면 춘하추동(春夏秋冬)이요, 방위(方位)로 보면 동서남북(東西南北)이요, 오행(五行)으로 보면 목화금수(木火金水)요, 사람과 신에게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이다. 봄은 만물을 생(生)하므로 원(元)이요, 여름은 무성하게 길러 풍부함으로 형(亨)이요, 가을은 결실과 추수의 계절이므로 이(利)요, 겨울은 추위를 견디고 봄을 기다려야 하므로 정(貞)이다. 이것이 만물이 생장수장(生長收藏)하는 이치이다. 결과적으로 도(道)란 상제께서 밝혀 놓으신 우주의 이치(理致)이며, 하늘의 명(命)으로서 인간이 반드시 취(取)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대순지침』에서는 도(道)의 성질에 대해서 “도(道)란 무단불식(不斷不息)하여 무형무적(無形無跡)하고, 무성무취(無聲無臭)하지만 공명정대하여 무위무과(無爲無假)하며, 무편무사하여 두과지리(豆瓜之理)와 같다”<sup>7)</sup>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道)란 끊임이나 쉬이 없고 그 형태(形態)나 자취가 없으며,

4) 『전경』, 교운 1장 66절

5) 『대순지침』, 18쪽

6) 『전경』, 교운 2장 41절, 運合呪

7) 『대순지침』, 91-92쪽

소리도 냄새도 없다. 또 도(道)란 거짓이 없고 편벽(偏僻)됨이나 사사(私事)로움이 없다. 곧 도(道)는 공심인데 공나고 팔심인데 팔나는 진리(眞理)와 같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도(道)란 영원한 진리로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수도(修道) 여하에 따라 도통(道通)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도(道)란 마음을 두지 않으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고 만져도 느낄 수 없다”<sup>8)</sup>고 하여, 도(道)를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한곳에 집중(執中)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도를 신도(神道)로 규정한 것은 특징적(特徵的)이다. 『대순지침』에 “우리의 도(道)는 신도(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함은 신도와 인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sup>9)</sup>고 했다. 본래 우주의 이치는 도(道)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며, 도(道)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인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란 인간의 욕심(慾心)과 편견(偏見)에 의해 생긴 소산물(所產物)이다. 사도(邪道)는 어느 정도는 진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하늘과 땅의 이치를 거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邪道)는 인간이 인간본래의 무욕청정(無慾淸淨)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는 장애물(障礙物)으로써 인간의 판단력(判斷力)을 약화시키고 우주의 질서마저 혼란스럽게 한다. 반면에 신도(神道)란 인위(人爲)가 아닌 신위(神爲)의 차원에서 인간의 본성을 되찾게 해주고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면 도(道)와 교(教)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중용(中庸)』에는 “천성 그대로 행하는 것을 도라 하고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sup>10)</sup>라 하였고, 관괘(觀卦) 단전(象傳)에서 “성인이 신도로써 교를 베푼다(成人以神道 說教)”<sup>11)</sup>고 하였다. 이렇게 보았을 때, 도(道)는 천리(天理)로서 하늘이 행하는 일이며 교(教)는 사람이 행하는 일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주와 인간사이에는 도(道)가 있으며 그 도를 포덕과 교화로써

8) 『大學』 誠意 正心章

9) 『대순지침』, 39쪽

10) 『中庸』 首章

11) 『周易』 觀卦 象傳

전파하는 것을 교(敎)라 한다. 하늘의 이치는 도(道)이고 그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교(敎)이다.

## 2. 도통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성(本性)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鍊磨)하여 자기자신의 기질(氣質)을 단련(鍛鍊)하여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을 체인체득(體認體得)하기 위하여 힘써 닦아 정성(精誠)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도가 곧 나(我卽道)요 내가 곧 도(道卽我)라는 경지를 바르게 깨달아 환하게 도(道)에 통하게 되면 삼계(三界)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우주 전체의 이치를 온갖 정성(精誠)을 다하여 깨달음으로써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영통(靈通) 또는 도통(道通)이라고 한다.<sup>12)</sup>

그렇다면 도통(道通)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이것은 나중에 수도방법(修道方法)을 논(論)하는 장(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괄적으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면 『대순지침』에 도통(道通)과 관련된 구절을 먼저 찾아 보기로 하자.

“수도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인데 이것을 어기면 도통을 받을 수 있겠는가.”<sup>13)</sup>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sup>14)</sup>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느니라.”<sup>15)</sup>

12)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13) 『대순지침』, 37쪽

14) 『대순지침』, 37쪽

15) 『대순지침』, 37쪽

“도통은 선후의 차등이 없고 오로지 바르게 닦느냐의 여부에 있을 뿐이다”<sup>16)</sup>

“도통이란 어느 누가 물품을 수수하듯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니라”<sup>17)</sup>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sup>18)</sup>

위의 인용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수도(修道)란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며 도덕(道德)을 밝혀 나가는 일로써 바른 마음으로 정성(精誠)을 다해야 한다. 수도의 목적(目的)은 도통(道通)에 있으며, 도통은 서로 나누어 갖거나 선후의 차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수도(修道)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 『전경』은 도통(道通)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으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고 하셨도다.”<sup>19)</sup>

도통(道通)은 각자가 닦은 바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이전에는 도통을 하려는 자가 음해(陰害)를 받아 도통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차후에는 오히려 도통을 받으려는 자를 음해(陰害)하려고 하는 자가 해를 입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다.”<sup>20)</sup>

이 내용은 도통의 공평성(公平性)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곧 도통(道通)을 내

16) 『대순지침』, 37-38쪽

17) 『대순지침』, 38쪽

18) 『대순지침』, 38쪽

19) 『전경』, 교운 1장 40절

20) 『전경』, 교운 1장 41절

려주는 것은 상제의 판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제의 주재하에 유·불·선 도통신(道通神)들이 모여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이 있는 『전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자.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두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sup>21)</sup>

여기서는 도통을 내려줄 때, 유·불·선 도통신(道通神) 뿐만이 아니라 각 성(姓)의 선령신(先靈神)도 참여하여 판단(判斷)을 내린다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칠십 이 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오백 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sup>22)</sup>

공자(孔子)는 72명, 석가(釋迦)는 500명만을 도통(道通)케 하여 도통을 받지 못한 자가 원한(怨恨)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은 선천(先天)의 한계성(限界性)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상제께서 신명계(神明界) 공사(公事)를 통해 상제의 말씀에 따라 진정으로 도(道)를 닦는 자는 누구나 도통(道通)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

또 상제께서는 도통할 수 있는 구체적(具體的)인 방법으로 서전서문(書傳序文)을 많이 읽을 것을 권했는데, 서전서문(書傳序文)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원(慶元) 기미(己未)의 겨울.

선생 문공이 나에게 「서집전(書集傳)」을 짓게 하시고 이듬해(1200년)

21) 『전경』, 교운 1장 33절

22) 『전경』, 교운 1장 34절

에 선생은 돌아가셨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책 한 권을 완성하니 모두 약 만개쯤 되는 어휘(語彙)들로 구성되어 있다. 슬프다! 서경(書經)에 대해서 어찌 쉽사리 말하겠는가.

이제삼왕(二帝三王)이 세상을 다스리던 바른 원리(大經 大法)가 다 이 책에 실려 있으되, 나 같은 식견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그 심오한 진리를 다 캐낼 수 있으랴! 또 수 천년(약 3500년) 후에 나서 수 천년 전의 일을 연구하여 밝히려는(講明) 그 자체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삼왕(二帝三王)의 정치는 도(道)에 근본을 두고 이제삼왕(二帝三王)의 도(道)는 마음에 근본을 두었으니 그 마음만 깨달으면, 그 도(道)와 정치(政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런가 하면, 정일집중(精一 執中)은 요(堯)·순(舜)·우(禹)가 주고 받은 심법(心法)이요, 건중건극(建中建極)은 상탕(商湯)·주무(周武)가 서로 전한 심법(心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덕(德)이니, 인(仁)이니, 경(敬)이니, 성(誠)이니 하는 것은 말은 비록 다르지만 실상 그 이치는 하나이니, 그것은 모두가 마음의 묘한 바탕을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천(天)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유래한 바를 엄숙하게 함이요, 민(民)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베푸는 대상에 대해서 삼가게 함이니, 예악(禮樂)·교화(教化)는 마음의 발로요, 제도(制度)·문물(文物)은 마음의 나타남이요, 제가(齊家)하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평천하(平天下)하는 것은 마음을 넓혀 나가는 것이니, 참으로 마음의 덕(德)이 크다 하겠다.

이제삼왕(二帝三王)은 이 마음을 간직한 분이요, 하갈상수(夏桀商受)는 이 마음을 잃은 이요, 태갑(太甲)·성왕(成王)은 마음의 곤란을 겪다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 이 마음을 간직하면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이 마음을 잃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져서 치란(治亂)의 분기점(分岐點)에서 살펴보면 이 마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후세의 인주(人主)로서 이제삼왕(二帝三王)의 치(治)에 뜻을 들진대 그 도(道)를 구해야 하며, 이제삼왕(二帝三王)의 도(道)에 뜻을 들진대 그 마음을 구하지 아니할 수 없으리니, 그 마음을 구하는 요령은 이 책 말고 무엇으로 찾으랴. 내(蔡沈)가 이 글을 읽은 이래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 말씀을 참고하여,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깨우쳐서 이에 감히 절충하니, 미묘(微妙)한 말씀과 오묘(奧妙)한 깊은 뜻은 과거에 자주 선생께 들던 바를 기술했고, 더욱이 이전(二典)과 우모(禹謨)는 선생이 일찍이 손수 바로잡으시어 원고에 그 손때가 아직도 새로우니, 안타깝구나!

집전(集傳)은 본래 선생이 명한 바라. 선생의 학설을 인용함에는 구태여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대(四代)의 서(書)를 나누어 여섯 권(六卷)으로 하니 문장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다스림은 도(道)로써 서로 같다. 성인의 마음이 서경(書經)에 나타남이 마치 조물주의 묘한 뜻이 만물에 드러남과 같아서 마음을 정밀(精密)하고 깊게 하지 못하면 능히 성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이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

의 마음속 깊은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하겠으나,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주공(周公)의 글을 이것으로 새겨 읽으면, 그 뜻의 대략은 짐작할 것이다.

가정(嘉定) 기사(己巳) 삼월 보름 다음날  
무이(武夷) 채심(蔡沈)은 서(序)하노라.

(慶元 己未 冬에 先生 文公이 令沈으로 作書集傳하라 하시고 明年에 선생이 沒하시거늘 又 十年에야 始克成編하니 總若干萬言이라. 嗚呼라 書豈易言哉리오. 二帝三王 治天下之大經大法이 皆載此書로되 以淺見薄識으로 豈足以盡發蘊奧리오. 且生於數千載之下하야 而欲講明於數千載之前하니 亦已難矣라. 然이나 二帝三王之治는 本於道하고 二帝三王之道는 本於心하니 得其心이면 則道與治를 固可得而言矣라.

何者오? 精一執中은 堯舜禹相授之心法也오. 建中建極은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니 曰德 曰仁 曰敬 曰誠은 言雖 殊而理則一이니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라.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이오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니 禮樂教化는 心之發也오 典章文物은 心之著也오 家齊國治而天下平은 心之推也니 心之德이 其盛矣乎인저! 二帝三王은 存此心者也오 夏桀商受는 亡此心者也오 太甲成王은 困而存此心者也니 存則治하고 亡則亂하야 治亂之分이 顧其心之存不存如何耳라 後世 人主로 有志於二帝三王之治인댄 不可不求其道오 有志於二帝三王之道인댄 不可不求其心이니 求心之要는 舍是書何以哉리오. 沈이 自受讀以來로 沈潛其義하고 參考衆說하야 融會貫通일새 迺敢折衷하니 微辭奧旨는 多述舊聞이오 二典禹謨는 先生이 蓋嘗是正하사 手澤이 尙新하니 嗚呼惜哉라 集傳은 本先生所命이라 故로 凡引用 師說하야 不復識別하고 四代之書를 分爲六卷하니 文以時異나 治以道同이라 聖人之心見於書이 猶化工之妙著於物하니 非精深이면 不能識也라 是傳也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心엔 雖未必能造其微나 於堯舜禹湯文武周公之書엔 因是訓詁면 亦可得其指意之大略矣리라. 嘉定 己巳 三月 既望에 武夷 蔡沈은 序하노라).<sup>23)</sup>

상제께서는 이 서전서문(書傳序文) 외에도 『대학(大學)』을 많이 읽으라고 하셨는데, 상제의 부친께서는 상제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읽지는 못하였으나 끊임없이 읽었으므로 지혜가 밝아져 마을 사람들의 화난을 덜어준 일이 많았다고 전해진다.<sup>24)</sup> 또 상제께서는 아우 영학(永學)에게도 『대학』을 많이 읽으면 도(道)에 통(通)하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

23) 「書傳」, 書集傳序 참조

원문(原文)에 토씨를 달은 것은 본 논자(論者)의 의도에 의한 것임.

24) 「전경」, 교법 2장 26절 참조

보기로 하자.

“상제께서 아우 영학(永學)에게 부채 한 개에 학을 그려 주시고 「집에 가서 부치되 너는 칠성경(七星經)의 무곡(武曲) 파군(破軍)까지 읽고, 또 대학(大學)을 읽으라 그러면 도에 통하리라」고 이르셨도다. 영학이 돌아가는 길에 정 남기의 집에 들르니 그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이 부채를 탐내어 빼앗고 주지 않으니라. 영학이 그 부채의 내용 이야기를 말하니 아들은 더욱 호기심을 일으켜 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영학은 빼앗기고 집에 돌아왔도다. 아들은 부채를 부치고 대학의 몇 편을 읽지도 않았는데 신력이 통하여 물을 뿌려 비를 내리게 하며 신명을 부리게 되는 지라. 남기는 기뻐하여 자기 아들로 하여금 상제의 도력을 빼앗고자 아들과 함께 하운동에 가는데 때마침 상제께서 우묵골(宇默谷)로부터 하운동에 오시는 길이었도다. 남기의 아들이 상제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가거늘 남기가 붙들고 와서 상제께 배알하니 상제께서 그의 속셈을 꿰뚫고 남기의 무의함을 꾸짖으시며 그 아들의 신력(神力)을 다 거두신 후에 돌려 보내셨도다.”<sup>25)</sup>

서전서문(書傳序文)이나 『대학』만을 읽으므로써 도통(道通)할 수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도통은 상제의 진리를 믿고 따르며 정성을 다하여 수도(修道)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도통(道通)은 정 남기의 아들처럼 남이 도통하려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욕심(慾心)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남이 도통하려는 것을 음해(陰害)하므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다. 도통(道通)이란 청정무구(淸淨無垢)한 인간의 본성(本性)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本質的)으로 도를 닦는 마음 그 자체는 순수(純粹)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이나 서전서문(書傳序文)에 나와 있는 의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제의 진리를 믿고 따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도(道)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 3. 도통진경

도통진경(道通眞境)이란 ‘도(道)를 통한 참다운 경지(境地)’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가 목표로 하는 이상세계(理想世界)를 말한다.

25) 「전경」, 권지 1장 15절

도통진경(道通眞境), 지상신선세계(地上神仙世界),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 등은 상황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를 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수도(修道)를 통한 도통이, 지상신선세계(地上神仙世界)는 도교적(道敎的)인 표현으로서 사후(死後)가 아닌 현실세계(現實世界)에 이룩된다는 점이, 그리고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는 상극(相克)이 지배했던 선천세계(先天世界)와 상생(相生)이 이루어진 후천세계(後天世界)라는 시간적(時間的)인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그래서 도통(道通)으로 현실세계에 이룩된 상생의 세계가 바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이고 지상신선세계(地上神仙世界)이며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인 것이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4강령(四綱領) 중에 안심(安心)과 안신(安身)이 있는데, 이는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개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心)만 중히 여기고 몸(身)에 대해서는 등한시(等閑視)하지만, 실로 인간의 몸과 마음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닌 것이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상(理想)을 추구하되 현실(現實)에도 충실(忠實)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理致)인 것이다. 마음과 몸의 길,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길은 모두 하나의 도(道)에서 나온 두 길이라 할 수 있다.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sup>26)</sup>라고 했듯이, 신체(身體)의 활동인 말과 행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동(行動) 기능(機能)을 주관(主管)하는 것은 마음이며, 마음의 현상(現象)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다. 바로 상제의 진리에 따라 마음과 몸이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것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상세계(理想世界)만을 추구하고 현실(現實)을 무시하거나 현실(現實)에 대해 소극적(消極的)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현실세계(現實世界)에 충실(忠實)하고 적극적(積極的)으로 대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상세계(理想世界)의 추구하고 현실세계(現實世界)에 대한 적극적(積極的)인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이 실현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도통진경(道通

26) 「전경」, 교법 1장 11절

眞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이 실현된 후천세계(後天世界)의 실상에 대해서 『전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쾌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sup>27)</sup>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지내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sup>28)</sup>

인간이 원한(怨恨)을 품게 되는 원인은 반상(班常)의 구별, 적서(嫡庶)의 차별, 남존여비(男尊女卑), 빈부(貧富)의 격차, 지배계급(支配階級)의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의 억압, 종교탄압(宗教彈壓), 인종차별(人種差別) 등이다. 이러한 원한을 발생케 하는 원인들은 근본적(根本的)으로 인간이 타인(他人)이나 타집단(他集團)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경쟁(生存競爭)의 결과이다. 인간이 생존경쟁을 하는 것은 선천세계(先天世界)가 인간들을 만족시킬 만큼 물질적(物質的)·정신적(精神的)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여유(餘裕)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競爭)은 욕망(慾望)을 낳으며, 욕망은 또 다른 경쟁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악순환(惡循環)으로 현실세계(現實世界)는 시기(猜忌)와 질투(嫉妬), 반목(反目)과 투쟁(鬪爭)이 난무한 진멸지경(盡滅之境)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가 되면 인간은 물질적(物質的)·정신적(精神的)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衣)·식(食)·주(住)가 해결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모두 없다면, 인간의 욕

27) 『전경』, 예시 80절

28) 『전경』, 예시 81절

망은 자연히 사라지고 생존경쟁의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 특별히 가진자가 특권(特權)을 누리는 것도 아니며, 인간 누구나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원(願)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원한(怨恨)의 종말(終末)을 의미한다. 인간(人間)과 인간(人間), 집단(集團)과 집단(集團), 국가(國家)와 국가(國家)사이에 원한(怨恨)을 가질래야 가질 것이 없는 세계, 이것이 도통진경(道通眞境)의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이며, 사후(死後)가 아닌 현실세계(現實世界)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의 세계이다.

### Ⅲ. 도통진경의 전제조건

#### 1. 음양합덕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음과 양의 덕을 합한다’는 의미로, 음양(陰陽)과 합덕(合德)의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명사이다. 이런 연유로 음양합덕(陰陽合德)을 논하기 위해서는 음양론(陰陽論)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양론(陰陽論)은 동양사상(東洋思想) 전반에 걸쳐 대두되는 이론으로 정신(精神)·물질(物質)·우주(宇宙)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데 기초가 된다.

음양론(陰陽論)은 정반대의 개념인 음(陰)과 양(陽)이 상호보완적(相互補完的) 관계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음과 양의 관계는 ‘서로 대립(對立)하면서도 서로 의존(依存)하는 관계’, ‘상대가 존재(存在)함에 의하여 비로소 자기가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음(陰)과 양(陽)은 서로 어느 한 쪽을 부정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정함으로써 확인이 될 수 있는 필연적(必然的)인 관계(關係)속에 놓여 있다. 이를테면 우주만물의 생성원리(生成原理)가 음과 양의 조화로운 결합속에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음양론(陰陽論)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주역계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무극이 태극이다. 태극이 동해서 양을 낳고 동이 극하면 정이 된다. 정

하여 음을 낳고 정이 극하면 다시 동한다. 한 움직임(動), 한 고요함(靜)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뉘어 양의(兩儀)가 선다(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sup>29)</sup>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라는 이치에 대해서,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는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圓)이 무극(無極)이고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다. 우주(宇宙)가 우주된 본연(本然)의 법칙(法則)은 그 신비(神秘)의 오묘(奧妙)함이 태극(太極)에 있기 때문에 태극(太極)보다 더 지극(至極)함이 없으며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리(眞理)라고 표현하고 있다.<sup>30)</sup> 또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음양(陰陽)을 낳는데, 음(陰)이 극(極)하면 양(陽)이 되고 양(陽)이 극(極)하면 음(陰)이 된다는 말이다. 음(陰)에 양(陽)의 속성이 있고 양(陽)에 음(陰)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음양의 변화에 대해서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음과 양에 있어 만사는 음에서 일어나 양을 펼치니 먼저 어두운 음을 살피고 다음으로 밝은 양을 보며, 매사에 먼저 시발하는 곳을 관찰하여야 한다. 또한 일은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나타나고 양으로 드러나면 음은 숨는다. 모름지기 먼저 음양을 살펴야, 한다. 음양은 물과 불이다(...) 음이 쇠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 쇠하면 음이 생하는 생살(生殺)의 도(道)가 음양에 있다(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sup>31)</sup>

그렇다면 음(陰)과 양(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음과 양은 우주 만물의 서로 상대적(相對的)인 위치(位置)나 상태(狀態) 또는 성질(性質)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다. 신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다. 암컷은 음이고 수컷은 양이다. 안은 음이고 밖은 양이다. 왼쪽은 음이고 오른쪽은 양이다. 숨은 것은 음이고 나타난 것은 양이다. 앞은 양이고 뒤는 음이다.<sup>32)</sup> 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덕(德)으로 합

29) 周濂溪, 「太極圖說」

30) 여주 본부도장 벽면의 글 참조

31) 제생 43절

32)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참조

해졌을 때 상생(相生)의 도(道)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음양합덕(陰陽合德)이다.

비견(比肩)될 바 아니지만, 서양(西洋)에서 이와 유사한 이론을 찾으려면 변증법(辨證法)을 그 예(例)로 들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辨證法)은 인식(認識)이나 사물(事物)의 존재를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정(正)의 단계란 그 자체내에 모순(矛盾)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모순을 알지 못하는 단계이며, 반(反)의 단계란 그 모순이 자각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에 부딪침으로써 제 3의 합(合)의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 이 합(合)의 단계는 정(正)과 반(反)이 종합 통일된 단계이며 여기서는 정(正)과 반(反)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이 함께 부정되면서 통일된다. 이것을 마르크시즘에서는 사회(社會)·역사(歷史)·자연(自然) 등의 운동(運動), 변화(變化), 발전(發展)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적용시키고 있다. 그 요지는 정(正)과 반(反)이라는 서로 모순(矛盾)된 개념의 투쟁(鬪爭)을 통해 발전(發展)·통합(統合)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투쟁을 통한 방법이 현실 세계(現實世界)를 보다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발전과정(發展過程)속에서 발생하는 모순(矛盾)과 욕망(慾望), 소외(疏外)와 갈등(葛藤) 등으로 인한 원한(怨恨)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서양의 변증법적 논리는 또 다른 상극적(相克的)인 상황을 만들 뿐이다.

하지만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말하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음과 양이 부조화하여 상극적(相克的)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생적(相生的)인 상황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결과로 인도되는 세계가 바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이다.

## 2. 신인조화

신과 인간의 조화적 관계를 말하는 신인조화(神人調化)라는 용어(用語)는 그 의미의 독창성(獨創性)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용어와도 그 표현이 다르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서로 고르게 잘 어울린다’는 의미의 조화(調和)와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라는 의미의 조화

(造化)가 있다. 이러한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인조화에서 조화는 한자(漢字)로 ‘調化’이다. 결국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과 인간이 상생(相生)의 도(道)로 조화(調和)를 이루어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전경』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물의 이치는 모두 이 음양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逐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sup>33)</sup>

이것은 신과 인간이 음양의 관계속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다. 천지(天地)의 일이나 만물(萬物)의 이치가 음양의 변화속에서 이루어지듯이 신과 인간도 음양의 변화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사를 의탁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은 신이 없으면 앞에서 이끌어 주지 못함으로 신에 의지한다. 신과 사람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신과 사람이 합쳐지면 모든 일이 만들어진다. 신명의 일을 사람이 끝낸다. 사람의 일을 신명이 끝낸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과 사람이 서로 통한다.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자연히 땅의 도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道而所依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人人合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神明神明天地諸神明).”<sup>34)</sup>

이 인용문은 신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밝혀 주는 내용이다. 음과 양 중 어느 한쪽이 없으면 천지만물이 존재할 수 없듯이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신이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존의 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33) 『전경』, 교운 2장 42절 陰陽經

34) 『전경』, 교운 2장 42절

대순사상(大巡思想)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은 양이고 신은 음으로서 음양 즉, 신과 인간이 서로 합쳐진 후에 변화의 도(道)가 있게 되는 것이다.<sup>35)</sup> 이때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상생(相生)의 도(道)를 전제로 한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sup>36)</sup>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sup>37)</sup>

이제는 인존시대(人尊時代)로서 천존(天尊)이나 지존(地尊)보다도 인존(人尊)을 중시한다. 그래서 선천(先天)에서는 일을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었으나,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일을 피하는 것은 하늘이고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어느 종교나 사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대순사상(大巡思想)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상호불가분(相互不可分)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존사상(人尊思想)이 대두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인식의 차원을 초월하고 있다.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말하는 인존사상이란 인간을 단순히 존중한다는 차원(次元)이 아니라, 인간을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의 중심적(中心的)인 존재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人間觀)은 인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사상을 새로이 인식하여 자신의 실천적인 수행에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함께 시사하고 있다.<sup>38)</sup>

35) 「전경」, 제생 43절 참조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

36) 「전경」, 교법 2장 56절

37) 「전경」, 교법 3장 35절

38) 拙稿, 주현철, 神人調化에 관한 研究, 「대순사상논총」 제 3집, 대순사상학술원, 포천 1997, 606쪽 참조

### 3. 해원상생

해원상생(解冤相生)이란 선천세계(先天世界)가 포원(抱冤)과 상극(相克)으로 지배되어 있는데 후천세계(後天世界)에는 맺혔던 원한(怨恨)이 모두 풀려 상생(相生)의 이상적(理想的)인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이다. 대순사상(大巡思想)은 기성의 여타 종교와는 달리 인간이 진멸지경에 이른 원인을 인간 자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의 상극적(相克的)인 원인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로써 대순사상의 상극론(相克論)은 상생론(相生論)과 함께 전우주적(全宇宙的)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삼계(三界)가 상극(相克)으로 인해 원한(怨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한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超越)한 타력적(他力的)인 방법과 인간에 의한 자력적(自力的)인 방법으로 분류된다. 타력적 방법은 상제의 권능(權能)에 의한 것이고 자력적인 방법은 인간 자신의 수도(修道)에 의한 해결방법을 의미한다. 후자(後者)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章)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타력적인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 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니라.”<sup>39)</sup>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천·지·인 삼계(三界)의 모든 원한(怨恨)을 풀 수 있는 타력적(他力的)인 방법이 상제의 권능에 의한 삼계공사(三界公事)임이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삼계공사란 삼계의 모든 상극적(相克的) 요소들을 없애고 상생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다시 말해서 천지개벽(天地開闢)을 하기

39) 『전경』, 공사 1장 3절

위한 신성(神聖)한 작업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상제께서 삼계공사를 하실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신인조화(神人調化)와 마찬가지로 음양합덕(陰陽合德)의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우주만물은 음양의 관계에 있으며 이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상극적 상황이 발생하여 원한이 발생케 된다.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sup>40)</sup>

이렇게 자연(自然)이나 자연현상(自然現象)에서도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서로 시비(是非)가 일어나 원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순사상적 관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신(神)에게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중천신(中天神)은 후사(後事)를 못둔 신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 황천신(黃泉神)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게 되었고<sup>41)</sup>, 서양의 이마두는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나 유교(儒敎)의 폐습(弊習)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원한을 품게 되었으며<sup>42)</sup>, 인간세상에서 인간들 사이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천상계(天上界)에 있는 선령신(先靈神)들사이에 서로 불화를 일으켜 서로 원한이 맺히게 되었다.<sup>43)</sup>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들은 이기심(利己心)과 사리사욕(私利私慾)으로 남에게 척(慝)을 지어 원한을 맺게 하는 실례(實例)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현실세계가 고도로 발달된 물질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는 인간이나 집단, 국가나 민족사이에 제각기 사상이 달라서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고, 천·지·인 삼계는 서로 통하지 못하여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파멸로 치달고 있다.<sup>44)</sup> 이러한 상황에서 해원상생(解冤相生) 대도(大道)의 실천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

40) 「전경」, 교법 3장 6절

41) 「전경」, 공사 1장 29절 참조

42)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43) 「전경」, 교법 1장 54절 참조

44) 「전경」, 예시 8절 참조

구된다. 결국 해원(解冤)은 상생(相生)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상생(相生)은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 IV. 도통진경을 위한 수도방법

도(道)를 명확히 알고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다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陰)이라 할 수 있고 행(行)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道)를 아는 것과 행(行)하는 것 즉, 수도(修道)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이 되어야 한다. 수도(修道)란 자의식(自意識)을 가진 인간의 능동적(能動的) 심신작용(心身作用)으로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다. 또 수도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심신작용을 말하는데 그 목적이란 도통(道通)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도란 영원한 생명인 도(道)에 바탕을 두고 그 도(道)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모색하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수도(修道)의 목적(目的)은 무자기(無自己)를 통해서 자기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자기자신을 완성(完成)시킨다는 의미는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에 도달하여 정신(精神)을 개벽(開闢)하고 더 나아가서 천하(天下)를 화평(和平)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주께서는 어느날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는 옛날에도 지금도 듣지 못한 도(吾道者今不聞古不聞之道也)이기 때문에 믿고 닦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다.<sup>45)</sup> 또 상제께서는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sup>46)</sup>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도(道)를 닦는다는 것이 어려운 만큼 도를 닦아 도통(道通)하게 되면,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먼저 『대순진리회요람(大巡眞理會要覽)』을 통해 수도(修道)의 구

45) 「전경」, 교운 2장 18절 참조

46) 「전경」, 교법 2장 22절

체적인 의미를 알아 보기로 하자. “수도(修道)는 심신(心身)을 침잠추밀(沈潛推密)하여 대월(對越) 상제(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精神)을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生覺)하고 지성(至誠)으로 소정(所定)의 주문(呪文)을 봉송(奉誦)한다.”<sup>47)</sup> 또 요람(要覽)의 다른 곳에서 앞의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수도(修道)란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生覺)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sup>48)</sup>고 정의하고 있다.

또 『대순진리회요람』은 수도(修道)의 삼요체(三要諦)인 성(誠)·경(敬)·신(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誠):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境地)에서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全體)를 통솔(統率)이용(理用)하나니,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경(敬)이란 심신(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一身上) 예의(禮儀)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신(信):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壁)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企

47)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교무부, 서울 1969, 18쪽

48) 『대순진리회요람』, 15-16쪽

待)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到達)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sup>49)</sup>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수도(修道)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sup>50)</sup> 성(誠)·경(敬)·신(信)을 떠나서는 올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도 마찬가지다. 성·경·신으로 해원상생(解冤相生)을 이루며 생사판단(生死判斷)도 결정된다.<sup>51)</sup> 결국 수도자(修道者)는 성(誠)·경(敬)·신(信)을 실천하지 못하면 자신이 목적인 바 도통(道通)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 1. 수도공부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는 궁극적 목적인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이룩하기 위하여 수도방법(修道方法)으로서 여러가지 법방(法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수행(實踐修行)하고 있다. 법방(法方)은 도법(道法)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한 성스러운 방법으로서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기초를 세우시고 도주(道主)와 도전(都典)께서 체계화했다. 수도(修道)의 법방(法方)으로는 기도(祈禱)·수련(修鍊)·공부(工夫) 등이 있다.<sup>52)</sup>

기도(祈禱)는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앙의 대상에게 기원하는 의식(儀式)으로 평일기도(平日祈禱)와 주일기도(主日祈禱)로 구분한다. 평일기도(平日祈禱)는 매일 진(辰)·술(戌)·축(丑)·미시(未時)에 자택(自宅)에서 행하며, 주일기도(主日祈禱)는 갑(甲)·기일(己日) 자(子)·오(午)·묘(卯)·유시(酉時)에 지정된 장소 혹은 자택에서 행한다. 수련(修鍊)은 일정한 시간(時間)과 장소(場所)의 지정이 없이 태을위시(太乙爲始)로 주문(呪文) 전체를 일독(一讀)한 후에 태을주(太乙呪)를 계속 봉송(奉誦)한다.<sup>53)</sup>

시학(侍學) 및 시법공부(侍法工夫)는 도주(道主)께서 오 십년 공부로써 이룩한 광구천하(匡救天下)의 법방(法方)으로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법공부

49) 「대순진리회요람」, 16-17쪽 참조

50) 「대순지침」, 37쪽 참조

51) 「대순지침」, 54쪽 참조

52) 「대순진리회요람」, 18쪽 참조

53) 「대순진리회요람」, 18쪽 참조

(眞法工夫)이다. 도주께서는 1957(丁酉)년 11월 도인(道人)들의 수도공부(修道工夫)의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工夫)를 시학공부(侍學工夫)와 시법공부(侍法工夫)로 구분하셨다. 그리고 각 공부반(工夫班)은 36명으로 하되, 시학(侍學)은 5일마다 초강식(初降式), 15일마다 합강식(合降式)을 올리고 45일이 되면 봉강식(奉降式)을 행하게 하셨다. 시법(侍法)은 시학공부(侍學工夫)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降式)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인원(工夫人員)은 시학원(侍學員) 정급(正級) 진급(進級)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서 구성하고, 시학원(侍學員)은 자신이 담당한 공부반(工夫班)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正級)은 시간을 알리는 종(鐘)을 올리고 진급(進級)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修道處)의 질서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侍學官)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다.<sup>54)</sup>

공부(工夫)의 수행방법은 일정(一定)한 장소(場所)에서 지정(指定)된 방법과 시간에 따라 주문(呪文)을 송독(誦讀)하는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수련공부(修鍊工夫)에는 태을주(太乙呪), 시학(侍學) 및 시법공부(侍法工夫)에는 봉축주(奉祝呪), 태을주(太乙呪), 기도주(祈禱呪), 칠성주(七星呪), 운장주(雲長呪), 도통주(道通呪), 진법주(眞法呪)가 사용된다. 이렇게 도주께서 실행케 하신 공부(工夫)의 법방(法方)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실행되고 있으며, 공부(工夫)는 도인(道人)의 생명(生命)보다도 소중(所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2. 주문(呪文)

주문(呪文)이란 반복하여 암송(暗誦)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주술적(呪術的)이며 신비로운 언어(言語)이자 우주의 진리(眞理)를 나타내는 음성(音聲)이다. 불교(佛敎)에도 주문(呪文)과 유사한 진언(眞言; mantra)이 있는데 다라니(陀羅尼; dhāraṇī)라고도 한다. 또 유교(儒敎)에는 영가(詠歌)가 있고 기독교에는 주기도문(主祈禱文)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 주문(呪文)은 수도(修道)를

54) 「전경」, 교운 2장 62절 참조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전경』에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신응(神應)되는 까닭이니라”<sup>55)</sup>고 하여, 신(神)과의 영적(靈的) 교류가 주문(呪文)을 통해 가능함을 말해 주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사용하는 주문(呪文)에는 봉축주(奉祝呪)·태을주(太乙呪)·기도주(祈禱呪)·진법주(眞法呪)·칠성주(七星呪)·운장주(雲長呪)·이십팔수주(二十八宿呪)·이십사절주(二十四節呪)·도통주(道通呪)·신장주(神將呪)·해마주(解魔呪)·신성주(神聖呪)가 있다. 주문(呪文)은 읽는 격식(格式)에 따라 축문식(祝文式)·경문식(經文式)·호령식(號令式)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축문식(祝文式)이란 유교(儒敎)에서 축문(祝文)을 외는 격식(格式)으로 대개 주문(呪文)의 끝귀절이 ‘하옵소서’로 되어 있다. 봉축주(奉祝呪)·기도주(祈禱呪)·진법주(眞法呪)·도통주(道通呪)·신성주(神聖呪)가 여기에 속한다. 경문식(經文式)은 불교(佛敎)에서 경문(經文)을 외는, 다시 말해서 염불하듯이 하는 격식(格式)으로 대개 ‘여를령(如律令)’으로 끝난다. 여기에는 태을주(太乙呪)·칠성주(七星呪)·이십팔수주(二十八宿呪)·이십사절주(二十四節呪)가 속한다. 호령식(號令式)은 군대(軍隊)에서 구령(口令)을 부르듯하는 격식(格式)으로 대개 ‘사바아’로 끝난다. 운장주(雲長呪)·신장주(神將呪)·해마주(解魔呪)가 여기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여러 주문(呪文) 중 태을주(太乙呪), 기도주(祈禱呪), 칠성주(七星呪)를 중심으로 『전경』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太乙呪

대순사상(大巡思想)에서 주문(呪文)은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상제께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실 때 시천주(侍天呪), 태을주(太乙呪), 오주(五呪) 등의 주문을 외우고 주문을 써서 불태우며, 또 시천주(侍天呪)를 가지고 사명기(司命旗)를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태을주(太乙呪)를 외우면 병마(病魔)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여 기본주문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태을주를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라고 한다. 또한 태을주(太乙呪)는 흠치주(吡哆呪)라고도 하는데, ‘흠치(吡哆)’란 송아지가 모태(母胎) 밖으로 나오면서

55) 『전경』, 교법 2장 23절

우는 소리를 본뜬 것으로 신생(新生)의 의미가 있다고 전해진다. 또 송아지는 음성(陰性)이기 때문에 후천(後天)을 의미하기도 한다.<sup>56)</sup> 태을주(太乙呪)는 다음과 같다.

흠치흠치 태을천상원군 흠리치야도래 흠리함리 사바아(吽哆吽哆 太乙天上元君 吽哩哆耶都來 吽哩喊哩 娑婆阿)<sup>57)</sup>

충남(忠南) 비인(庇仁) 출신인 김경흔(金京訃)이 오십년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신명(神明)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命)을 받았다.<sup>58)</sup> 김 경흔(金京訃)은 조선(朝鮮) 선조(先祖)때 사람으로서 해방 후에 김 경소(金京訃)라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는 50년간의 도통 공부(道通工夫)를 하면서 모든 주문들을 사용하여 보았지만 효험을 얻지 못하다가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인 ‘흠리치야도래 흠리함리 사바아’를 외우면서야 비로소 공부가 열렸다. 이 때 신명(神明)으로부터 계시(啓示)가 있었는데 이 주문의 첫머리에 ‘태을천상원군(太乙天上元君)’을 붙여 외우고 이 주문(呪文)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었다.<sup>59)</sup> 그러나 이 주문(呪文)으로도 완전한 도통(道通)을 하지 못하였다. 상제께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하실 때 김 경흔이 받은 태을주(太乙呪)의 첫머리에 ‘흠치흠치(吽哆吽哆)’를 첨가하여 인류를 구제하는 주문으로 사용하도록 하셨다고 전해진다.

그러면 태을주(太乙呪)의 효험에 대한 일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상제께서 태을주(太乙呪)를 써서 김 병욱(金秉旭)의 액(厄)을 풀어 주셨다.<sup>60)</sup> 그러나 그 액(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고, 다만 「전경」의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56) 李康五,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소, 대흥기획, 서울 1992, 37쪽 참조

57) 주문(呪文) 중에 한자(漢字)를 바르게 표기하지 못한 부분은 컴퓨터상에 해당 한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였음을 밝혀둔다. ‘리(哩)’자가 口와 里의 합성어인 것처럼, ‘야’자의 올바른 표기는 口와 耶, ‘아’자는 口와 阿의 합성어이다.

58) 「전경」, 교운 1장 20절 참조

59) 李康五,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60) 「전경」, 행록 3장 31절 참조

“이 해 五월에 백 남신을 체포하라는 공문이 서울로부터 전주부에 전달 되니 남신이 당황하자 김 병욱이 남신에게 작년 겨울에 자기가 화난을 당하였을 때 상제의 도움으로 화난을 면하였음을 알리니 그는 병욱을 통해 상제의 도움을 청하였도다.”<sup>61)</sup>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1904(甲辰)년 5월이다. 그러나 김 병욱이 상제의 도움으로 면한 화난(禍難)이 무엇인가는 『전경』에 드러나 있지 않다. 다음 구절을 보기로 하자.

“갑진년 十一月에 전주에 민요가 일어나서 인심이 흉흉하니라. 이 소란 중에 상제께서 전주에 이르셨도다. 김 보경이 상제를 배알하니 상제께서 「김병욱이 국가의 중진에 있으니 민심의 동요를 진무하여 그 천직을 다하여야 할 일이거늘 그 방책이 어떤 것인지」 하시고 궁금히 여기시니 보경이 병욱에게 이것을 전하였느니라. 병욱은 「나의 힘으로 물끓듯 하는 민요를 진무할 수 없으니 상제의 처분만을 바라옵니다」 고 말씀드렸도다. 상제께서 보경으로부터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웃으시기만 하시니라.

이날 밤에 눈비가 내리고 몹시 추워져 노영(露營)에 모였던 민중들은 내리는 눈비와 추위에 견디지 못해 해산하고 사흘동안 추위와 눈비가 계속 내리므로 민중이 다시 모이지 못하니 민요는 스스로 가라앉았도다.”<sup>62)</sup>

“상제께서 선달에 원평에 와 계셨을 때에 박 제빈(朴齊斌)이 전라도 전주에 출두하고 군수 권 직상(權稷相)이 파직될 것이란 소문이 떠들므로 김 병욱도 전주 군장교에 있는 신분으로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여 상제를 찾아 뵈옵고 걱정하니 상제께서 「근심하지 말라 무사하리라」 고 일러 주셨도다. 며칠 후에 박 어사가 전주부에 들어섰으나 그의 면관비훈이 전주부에 내려오므로 상제의 말씀대로 일은 무사하였도다.”<sup>63)</sup>

상제께서 태을주(太乙呪)를 써서 김 병욱의 액(厄)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하신 시점(時點)에서 볼 때, 김 병욱에게 닥친 위기는 파직(罷職)과 민중들의 소요(騷擾)로 인해 곤경에 처한 일이다. 그러나 본 논자(論者)의 견해로는 태을주를 실험하신 것은 파직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기 보다는 민중들의 소요로

61) 『전경』, 행록 3장 12절

62) 『전경』, 행록 3장 25절

63) 『전경』, 행록 3장 26절

인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건(事件)의 경중(輕重)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태을주(太乙呪)를 실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태을주를 외우면 자연의 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제께서 화천(化天)하실 때 태을주를 외우셨으며, 화천하신 직후에 갑자기 뭉게 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에 통했다는 사실에서 태을주의 신령(神靈)한 힘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태을주는 병마(病魔)를 쫓아 주고 우주의 힘을 움직일 수 있으며 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신비(神秘)한 주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제께서는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sup>64)</sup>고 말씀하신 것이다.

## (2) 祈禱呪

일반적으로 주문(呪文)에는 해석(解釋) 가능(可能)한 주문(呪文)과 해석(解釋) 불가능(不可能)한 주문(呪文)이 있다. 전자(前者)를 일컬어 음적(陰的) 주문이라 하고, 후자(後者)를 양적(陽的) 주문이라 한다. 태을주(太乙呪)는 해석할 수 없는 신비(神秘)로운 주문으로서 음적(陰的)에 속하며, 반면에 기도주(祈禱呪)는 시천주(侍天主)라고도 하는데, 해석 가능한 양적(陽的) 주문에 속한다. 기도주(祈禱呪)는 다음과 같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

기도주(祈禱呪)는 동학(東學) 교조(敎祖)인 수운(水雲) 최 제우(崔濟愚)가 득도(得道)하여 상제로부터 받은 주문(呪文)이다. 초기동학에서는 초학주(初學呪)·강령주(降靈呪)·본주(本呪)의 차례로 행해졌는데, 초학주(初學呪)는 ‘위천주고아정 영세불망만사의(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萬事宜)’의 13자, 강령주

64) 「전경」, 교운 1장 60절

(降靈呪)는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의 8자, 본주(本呪)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13자이다. 강령주(降靈呪)는 지기(至氣)가 강령(降靈)하기를 청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접령주(接靈呪)라고도 하며, 천령(天靈)과 통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通靈呪)라고도 한다. 수운(水雲)이 받은 주문(呪文)은 본주(本呪)와 강령주(降靈呪)를 합한 것이다.<sup>65)</sup> 이 주문(呪文)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경대전(東經大全)』의 <논학문(論學文)>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문기를 「주문(呪文)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포덕천하(布德天下)하여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이루어야 한다는 한울님과 한울님의 뜻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다. 그런 까닭으로 한울님께 청원한다는 의미의 글자인 주(呪) 즉, 주문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의 축원하고 청원하는 글은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모두 그 생활속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금의 글에도 있고 옛 글에도 있는 것이다.」(曰呪文之意 何也 曰至位天主之字故 以呪言之 今文有古文有)

문기를 「강령(降靈)의 글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지(至)라는 것은 지극한 것, 지극히 큰 것을 이르는 것으로, ‘지기(至氣)’는 곧 지극히 커서 그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빈 것과 같고, 한울님의 기이기 때문에 신령(神靈)한 것이며, 우주에 가득 차는 것으로써, 만리(萬理) 만사(萬事)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명령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형상(形狀)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을 수 있는 것 같으나 보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것 역시 우주를 덮고 있는 크나 큰 만물의 원기를 이루는 기운의 하나이다. ‘금지(今至)’라는 것은 이에 입도(入道)하여 비로소 한울님의 기운을 접하여 한울님의 기운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원위(願爲)’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것을 뜻하는 것이요. ‘대강(大降)’이라는 것은 한울님 기운과 나의 기운이 하나로 융화하게 되고, 나아가 모든 만리 만사에 화하여 하나의 이치로 귀일(歸一)함으로, 지상신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을 말한다.」(曰降靈之文 何爲其然也 曰至者 極焉之爲 至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今至者 於欺入道 知其氣接者也 願爲者 請祝之意也 大降者 氣化之願也)

「시(侍)라는 것은 안으로는 한울님의 신령(神靈)함을 만나는 것이요, 밖으로는 한울님의 무궁한 기운을 체득하는 것이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각기 깨달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主)’는 한울님을 존경하여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이요. ‘造化(造化)’라는 것은 무

6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20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서울 1992, 818쪽 참조

위이화(無爲而化)요. '정(定)'이라는 것은 덕(德)을 합하여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요. 영세(永世)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不忘)'이라는 것은 항상 한울님만을 생각한다는 뜻이요. '만사(萬事)'라 함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지(知)'라는 것은 한울님의 무궁한 도(道)를 깨달아 그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밝고 밝은 한울님의 덕을 잠시라도 잊지 아니 하면 한울님의 무궁한 지기(至氣)에 화하여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 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 故明明其德 念念不忘 則至化至氣 至於至聖)"<sup>66)</sup>

이상에서 『동경대전』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주(祈禱呪)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다. 『동경대전』에 대한 여러 해설서(解說書)에서 천주(天主)를 한울님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곧 구천상제(九天上帝)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주(祈禱呪)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이 주문(呪文)안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심오(深奧)한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는 자의적(字意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문(呪文)이라 하더라도 그 주문의 초월적(超越的)인 신령(神靈)한 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있다. 기도주(祈禱呪)는 상제의 진리에 귀의(歸依)하여 영원히 잊지 않도록 지극(至極)한 기운(氣運)을 받게 해 달라는 염원(念願)이 담긴 주문(呪文)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수운(水雲)이 이 신성(神聖)한 주문(呪文)을 얻고도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상제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상제께서는 수운(水雲)에게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내려 제세대도(濟世大道)를 세우게 하였으나 수운(水雲)이 능히 유교(儒敎)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1864(甲子)년에 그에게 내렸던 천명과 신교를 거두었다.<sup>67)</sup> 그 후 상제께서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1871(辛未)년에 인간의 몸을 빌어 강세(降世)하신 것이다.<sup>68)</sup>

비록 상제께서는 최 제우(崔濟愚)가 동학(東學) 교조(敎祖)로서 작란(作亂)

66) 尹錫山 註解, 『東經大全』, 동학사, 서울 1996, 78-86쪽 참조

67) 『전경』, 교운 1장 9절, 예시 1절 참조

68)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한 사람이며, 전 명숙(全明淑)이 동학란(東學亂)을 일으킨 사람이지만,<sup>69)</sup> 민중을 구하려고 했던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시천주(侍天呪)로 사명기(司命旗)를 만들어 전 명숙과 최 수운을 해원시켰다.<sup>70)</sup> 상제께서는 동학주(東學呪)를 천강(天降)이 아니고 제우강(濟愚降)이라고 하셨는데,<sup>71)</sup> 천강(天降)이란 상제의 지극(至極)한 기운(氣運)이 자신에게 내려와 하나로 합일(合一)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우강(濟愚降)이라는 것은 이미 상제께서 수운(水雲)으로부터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限界)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운이 나와 합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 (3) 七星呪

다음은 칠성주(七星呪)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칠성여래 대제군 북두구신 중천대신 상조금궐 하부곤륜 조리강기 통제  
전곤 대괴탐랑 문곡거문 녹존염정 무곡파군(七星如來 大帝君 北斗九辰  
中天大神 上照金闕 下覆崑崙 調理綱紀 統制乾坤 大魁貪狼 文曲巨門 祿  
存廉貞 武曲破軍...).

칠성주(七星呪)에는 도교(道敎)·불교(佛敎)·민속신앙적(民俗信仰的) 요소가 엮여 있다. 도교(道敎)에서는 천체를 신앙하는 것이 많고, 특히 북두칠성(北斗七星)을 신앙하는 칠성신앙(七星信仰)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교적 칠성신앙은 민간신앙(民間信仰) 뿐만 아니라 불교의 칠성신앙과 서로 절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앙은 『삼국지』 위지(魏志)와 이 규보(李奎報)의 『노무편(老巫篇)』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불교 사찰 가운데에 많은 칠성각(七星閣)이 남아 있어 신앙적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민속에서 보이는 칠성신(七星神)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칠성신(七星神)의 기능은 첫째, 비를 비는 신앙과 관련되어 물로 상징되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 믿어진다. 둘째는 인간의 수명(壽命)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어

69) 「전경」, 교법 3장 30절 참조

70) 「전경」, 공사 3장 2장 참조

71) 「전경」, 교운 1장 58절 참조

진다. 다시 말해서 무병장수(無病長壽)하는데 이 신이 수호(守護)하여 준다는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세제는 재물(財物)과 재능(才能)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이 칠성신은 세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신앙은 단순히 민간신앙(民間信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불교신앙(佛敎信仰)으로도 수용되어 불교 사찰안에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앞서 밝힌대로 사찰안에 있는 칠성각(七星閣)은 이러한 중요한 민간신앙인 도교적(道敎的) 민간신앙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칠성신앙(七星信仰)은 민간신앙(民間信仰)과 불교(佛敎)와 도교(道敎)가 절충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sup>72)</sup>

그러면 『전경』에서 칠성(七星)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김 형렬은 상제를 모시고 있던 어느날 상제께 진묵(震默)의 옛 일을 아뢰었도다(...) 진묵은 밤마다 북두칠성을 하나씩 그 빛을 가두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칠일만에 모두 숨겨버렸다 하나이다. 태사관(太史官)이 이 변은 하늘이 재앙을 내리심이니 천하에 대사령을 내리시어 옥문을 열고 천의에 순종하사이다 하고 조정에 아뢰오니 조정은 그것이 옳음을 알고 대사령을 내렸다 하나이다.

이 말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러하였으리라. 내가 이를 본받아 한달 동안 칠성을 숨겨서 세상 사람들의 발견을 시험하리라」 하시고 그날 밤부터 한달 동안 칠성을 다 숨기시니 세상에서 칠성을 발견하는 자가 없었도다.”<sup>73)</sup>

위 인용문의 전반부(前半部)는 진묵(震默)이 칠성(七星)을 하루에 한개씩 숨겨서 7일만에 모두 숨겼던神通력(神通力)에 대해서, 후반부(後半部)는 단 한번에 칠성(七星)을 숨겨 한달 동안 보이지 않게 하셨던 상제의 권능(權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또 칠성(七星)은 탐랑(貪狼)·거문(巨門)·녹존(祿存)·문곡(文曲)·염정(廉貞)·무곡(武曲)·파군(破軍)의 일곱개의 별을 일컫는데, 상제께서는 서양기운(西洋氣運)을 몰아내는 공사(公事)를 보시던 중 문곡(文曲)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셨다.<sup>74)</sup> 그래서 주문(呪文)에는 탐랑(貪狼)·

7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22권, 786-7쪽 참조

73) 『전경』, 행록 1장 31절

74) 『전경』, 공사 2장 21절 참조

“한번은 상제께서 임 상옥에게 사기 그릇을 주신 뒤에 공우를 대동하고 전주로 가시는 도중에 세천에 이르시니 점심 때가 되니라. 공우가 상제를 고 송암(高松

문곡(文曲)·거문(巨門)·녹존(祿存)·염정(廉貞)·무곡(武曲)·과군(破軍)의 순(順)으로 되어 있다. 탐랑성(貪狼星)은 자손을 잘되게 보살피 주고, 문곡성(文曲星)은 업장(業障)을 소멸(消滅)해 주고, 거문성(巨文星)은 구(求)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해주며, 녹존성(祿存星)은 장애(障礙)를 물리쳐 주고, 염정성(廉貞星)은 악귀(惡鬼)를 쫓아 내주고, 무곡성(武曲星)은 복덕(福德)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칠성주(七星呪)의 첫구절인 칠성여래(七星如來) 중 여래(如來)만을 놓고 보면 불교적인 성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래(如來)는 부처의 열가지 명호(名號) 가운데 하나로서 범어(梵語)로는 타타아가타(tathāgata)라고 한다. 이 말은 두 단어 (tathā+gata 또는 tatha+agata)의 합성어로서, 그 단어에 따라 해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타타아(tathā)는 여시(如是) 또는 여실(如實)이라는 뜻이고, 타타(tatha)는 진실(眞實)의 뜻이 있다. 가타(gata)는 ‘가다(逝)’는 뜻이 있고, 아가타(agata)는 ‘도달하다’, ‘오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타타아가타는 지금까지의 부처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 열반(涅槃)의 피안에 간 사람, 또는 진리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여래(如來)는 ‘여실히 오는 자’, ‘진여(眞如)에서 오는 자’라는 뜻으로서 부처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sup>75)</sup> 그러나 칠성여래(七星如來)라고 했을 때는 불교만이 아닌 도교나 민속신앙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칠성주(七星呪)가 도교·민속신앙·불교의 교리가 절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대순진리회의 독특한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는 도교의 북두주(北斗呪)와 비교해서 ‘칠성여래 대제군(七星如來 大帝君)’이 부가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앞서 밝힌대로 상제께서 칠성(七星) 중 문곡(文曲)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칠성주(七星呪)가 위에서 밝힌 칠성신앙(七星神仰)에 나타난 기능 이외에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보다 초월적(超越的)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菴)의 친구 집에 모시고 상제께 점심상을 받게 하였도다. 상제께서 문득 「서양 기운을 몰아내어도 다시 몰려드는 기미가 있음을 이상히 여겼더니 뒷 골방에서 탄전 보는 자가 있는 것을 몰랐노라」 하시고 「고 송암에게 물어보고 오너라」고 공우에게 이르시고 칠성경에 문곡(文曲)의 위치를 바꾸어 놓으셨다.”

75) 「한국불교대사전」 제 4권,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1982, 502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15집, 104쪽 참조

### 3. 포덕과 교화

포덕(布德)이란 ‘덕(德)을 편다’ 또는 ‘덕(德)을 전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덕(德)은 무엇인가? 노자(老子)는 덕(德)에 대해서 “도는 낳고 덕은 기른다. 또한 사물형(事物形)의 세(勢)가 이루어진다(道生之 德畜之 且物形之勢成之)”<sup>76)</sup>고 하였고, 『전경』에서는 “도가 있다. 도에는 덕이 있다. 덕에는 조화가 있다. 조화에는 길러냄이 있다. 길러냄에는 창생이 있다(曰有道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 育有蒼生)”<sup>77)</sup>고 하였다. 또 『대순지침』에서는 덕(德)은 도를 닦는 근본(根本)이라 하였고,<sup>78)</sup> 도(道)란 우주 만상의 시원(始源)이며 생성(生成)·변화(變化)의 법칙(法則)이고 덕(德)은 곧 인성(人性)의 신맥(新脈)이며, 신맥은 정신(精神)의 원동력(原動力)이므로 이 원동력은 윤리도덕(倫理道德)만이 새로운 맥(脈)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79)</sup> 이러한 내용은 도(道)는 체(體)고 덕(德)은 용(用)으로서 도(道)는 만물을 낳는 근원이고 도(道)가 동(動)하여 덕(德)을 생(生)한다는 이치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도(道)가 낳고 덕(德)이 기른다는 말은 하늘이 낳고 땅이 기른다는 의미로 하늘이 양(陽)이고 땅이 음(陰)이기 때문에 음양(陰陽)의 조화(調化)를 말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포덕(布德)은 상제께서 정(定)하여 놓으신 우주 만유의 법칙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이를 『대순지침』에서는 미래의 지상선경세계(地上仙境世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는 일이며,<sup>80)</sup> 상제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하시고자 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널리 알려 지상낙원(地上樂園)의 복(福)을 받게 하는 일이라고<sup>81)</sup>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이 포덕(布德)의 광의적(廣義的) 의미이자 본질적(本質的) 의미가 된다. 포덕의 협의적(狹義的) 의미이자 현실적(現實的) 의미로는 도(道)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道)의 참뜻을 알리고 입도(入

76) 老子, 『道德經』

77) 『전경』, 교운 1장 66절

78) 『대순지침』, 76쪽 참조

79) 『대순지침』, 44쪽 참조

80) 『대순지침』, 44쪽 참조

81) 『대순지침』, 21쪽 참조

道)케 함을 말한다. 이에 비해 교화(教化)란 가르치고 이끌어서 선(善)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로 포덕(布德)을 위한 언어행위(言語行爲)이다. 교화는 아직 입도(入道)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道)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달해 주고, 이미 입도(入道)한 도인들에게는 신앙심(信仰心)을 자극(刺戟)하고 고양(高揚)시키기 위한 수단(手段)이나 방법(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지침』을 보면, 포덕(布德)이란 해원상생(解冤相生)·보은상생(報恩相生)의 양 원리(原理)인 대도(大道)의 이치를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라 하였고<sup>82)</sup>, 교화(教化)를 할 때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이 남에게 척(慼)을 짓지 말고 남을 잘되게 하라는 진리이니, 화합(和合)·단결(團結)·상부상조(相扶相助)를 강조하고 실천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sup>83)</sup>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포덕(布德)과 교화(教化)는 서로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포덕과 교화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포덕·교화의 기능적인 역할은 선포적(宣布的)·윤리적(倫理的)·치유적(治癒的)·통합적(統合的)·신념적(信念的) 기능(機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포적(宣布的) 기능이란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만천하에 알리는 역할을 말한다. 즉, 원시(原始)의 모든 신성(神聖)과 불(佛)과 보살(菩薩)들이 회집(會集)하여 인류(人類)와 신명계(神明界)의 겁역(劫厄)을 구천(九天)에 하소연하므로, 상제께서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개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삼계(三界)의 대권(大權)을 갖고 삼계를 개벽(開闢)하여 선경(仙境)을 열고 사멸(死滅)에 빠진 세계창생(世界蒼生)들을 건지려고 동방(東方)을 순회(巡廻)하셨다. 그러던 중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삼십년을 지내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참화(慘禍)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민족(弱小民族)을 먼저 도와서 만고(萬古)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고 하신 것이다. 곧 상제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복록(福祿)을 얻어 불로불사(不老不死)하여 영원한 선경(仙境)의 낙(樂)을 이룰 것이다.<sup>84)</sup>

82) 『대순지침』, 19쪽 참조

83) 『대순지침』, 27쪽 참조

84) 『전경』, 교운 1장 9절, 권지 1장 11절 참조

이것은 한마디로 상제께서 광구천하(匡救天下)와 광제창생(廣濟蒼生)을 위해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하신 참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예나 지금이나 상제께서도 공사(公事)가 끝날 때마다 각처(各處)의 종도들에게 순회(巡廻)·연포(演布)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다.<sup>85)</sup>

두번째는 윤리적(倫理的) 기능이다. 『대순지침』은 이에 대해 “포덕(布德)은 덕을 편다는 말이니 겸허(謙虛)와 지혜의 덕으로 사(私)로 인하여 공(公)을 해치지 말고 보은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sup>86)</sup>라고 하였고, 또 “포덕은 인도(人道)를 선도하여 윤리도덕의 상도(常道)를 바르게 이룩하는 것이다”<sup>87)</sup>라고 하여 포덕의 윤리도덕적(倫理道德的)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교화의 기능을 일컫기도 한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은 이에 대해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훈회(訓誨)는 1. 마음을 속이지 말라. 2.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 3. 척을 짓지 말라. 4.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5. 남을 잘 되게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수칙(守則)은 1. 국법을 준수하며 사회도덕(社會道德)을 준행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에 기여하여야 함. 2.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음양합덕(陰陽合德)·만유조화(萬有造化)차제(次第) 도덕(道德)의 근원(根源)이라, 부모에게 효도(孝道)하고 나라에 충성(忠誠)하며, 부부화목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것이며 존장(尊長)을 경례(敬禮)로써 섬기고 수하(手下)를 애휼(愛恤) 지도하고, 친우간에 신의(信義)로써 할 것. 3. 무자기(無自己)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과 비리괴려를 엄금함. 4. 언동(言動)으로써 남의 척(慙)을 짓지 말며, 후의(厚意)로써 남의 호감(好感)을 얻을 것이요. 남이 나의 덕(德)을 모를 때의(掛意)치 말 것. 5. 일상 자신을 반성하여 과부족이 없는가를 살펴 고쳐 나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말한 훈회(訓誨)와 수칙(守則)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윤리도덕적(倫理道德的)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세번째는 치유적(治癒的) 기능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희망(希望)을 주고 용기(勇氣)를 북돋아 주어 신체(身體)에 생기(生氣)를 불어 넣어 몸과 마음의

85) 『전경』, 교운 1장 64절 참조

86) 『대순지침』, 19쪽

87) 『대순지침』, 19쪽

병을 치유해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마음의 활동은 신체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전(健全)하고 생기(生氣)가 있어야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순사상(大巡思想) 중 해원상생사상(解冤相生思想)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원리에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남에게 원한(怨恨)을 품지 않고 이전에 쌓이고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으로써 안심(安心)·안신(安身)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례(實例)로 서양의 철학자 니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著書)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에서, 원한감정(怨恨感情)<sup>88)</sup>의 영향보다 더욱 더 자신을 불살라 버리는 것은 없다. 성내는 것, 병적 감수성(感受性), 복수의 갈망(渴望), 여러 의미로써 독(毒)을 뒤섞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약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해로운 반응의 양식이다. 그것은 신경력의 급속한 소모, 이를테면 위속에 담즙이 분비되는 새로운 배설의 병적인 것이 그것에서 기인된다. 원한감정(怨恨感情)이란 병자에게는 금물 그 자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병자들의 가장 자연스런 경향이다. 원한(怨恨)으로부터 영혼(靈魂)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건강의 첫번째 길이라고 밝히고 있다.<sup>89)</sup> 또 그는 원한(怨恨)으로부터의 해방과 원한감정(怨恨感情)을 깨우쳤다는 것, 이 점이 자신의 오랜 지병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병이란 원한감정(怨恨感情)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다.<sup>90)</sup> 이것은 니체가 불교사상(佛敎思想)의 영향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한 직접적(直接的)인 체험에서 한 말이지만, 그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인(西洋人)이건 동양인(東洋人)이건 사람들이 남에게 원한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적(精神的)·육체적(肉體的)인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근본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치병적 원리인 해원(解冤)의 차원을 넘어 대순사상(大巡思想)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인류가 서로 원한을

88) 'Ressantiment'이란 복수심(復讐心)을 수반한 원한감정(怨恨感情)을 의미하는 불어(佛語)로써 독일어(獨逸語)에는 이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원한감정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89) vgl. Ecce Homo, Warum ich so weise bin. 6, in: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67~1974)

90)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풀고 하나가 되어 잘 살자는 인류평화사상(人類平和思想)으로서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네번째는 통합적(統合的) 기능이다. 이것은 포덕·교화를 할 때 화합(和合)·단결(團結)·상부상조(相扶相助)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기능이다.<sup>91)</sup> 이 기능은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도인의 의식(意識)의 통합을 통한 사회적 통합 기능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포덕은 『전경』을 바탕으로 하여 상제께서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기 위한 대인접촉(對人接觸)이라고 밝히고 있듯이,<sup>92)</sup> 포덕과 교화를 통해 개인(個人) 대 개인(個人), 개인(個人) 대 다수(多數)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도인(道人)은 일반인과 공감대(共感帶)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도인과 도인사이에는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단, 이러한 대인접촉은 『전경』을 바탕으로 상생(相生)을 위한 사상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으로 도(道)의 참뜻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도인들사이에서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화를 할 때 방면의 논리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반목(反目)과 갈등(葛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도인들의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에만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 역점(力點)을 두고 펼치고 있는 학교(學校)와 의료사업(醫療事業)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奉仕活動)은 사회와의 연대감(連帶感)을 형성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신념적(信念的)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 상제의 진리를 믿고 확신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교리는 신비적(神秘的)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논리적(論理的)으로나 합리적(合理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신앙심(信仰心)으로 극복하여 받아들여야만 하는 신념(信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교리가 신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종교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신비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종교로

91) 『대순지침』, 27쪽 참조

92) 『대순지침』, 21쪽 참조

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신념적(信念的)인 체계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모든 도인들은 믿음이 근본이니 믿음을 바르게 하도록 항상 배우고 전경의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라.”<sup>93)</sup>

“기본 교리를 상대에게 알기 쉽도록 이해시켜 진리를 확신케 하는 일이다.”<sup>94)</sup>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합일성을 밝혀 만상만유가 도 안에서 생성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확신케 하여야 한다.”<sup>95)</sup>

“교화는 신앙심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므로 임기응변하지 말고 진실을 알려 전폭적으로 믿도록 하여야 한다.”<sup>96)</sup>

위에서 제시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신념(信念)의 체계화(體系化)는 『전경』 내용을 중심으로 상제의 진리를 바르게 알리고 확신시킴으로써 가능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포덕·교화의 방법론이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수도공부(修道工夫), 주문(呪文), 포덕(布德) 및 교화(教化)를 통한 도통(道通)의 과정을 함축적(含蓄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심우도(尋牛圖)이다. 심우도는 심심유오(深深有悟)·봉득신교(奉得神教)·면이수지(勉而修之)·성지우성(誠之又誠)·도통진경(道通眞境)·도지통명(道之通明)의 단계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는 심심유오(深深有悟)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도자(求道者)가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해 심찰(深察)하는 단계이다. 두번째는 봉득신교(奉得神教)인데, 심심유오(深深有悟)의 단계에서 가졌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깊은 명상에 빠져보기도 하고, 성현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던 중 삼생의 인연에 의해 구천상제의 도(道)를 받들어 그 도를 얻는 단

93) 『대순지침』, 77쪽

94) 『대순지침』, 44쪽

95) 『대순지침』, 45쪽

96) 『대순지침』, 45쪽

계이다. 세째는 면이수지(勉而修之)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구천상제와 도주께서 짜놓으신 진법(眞法)에 의하여 힘써 도를 닦아 나가는 단계이다. 네번째는 성지우성(誠之又誠)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수도(修道)를 함에 있어서 항상 정성(精誠)의 부족함을 반성하여 구천상제께 심고(心告)하면서 정성에 정성을 다하는 단계이다. 다섯번째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단계이다. 정성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마음의 눈이 저절로 열려서 천·지·인 삼계와 과거·현재·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마지막 여섯번째는 도지통명(道之通明)의 단계이다. 천·지·인 삼계(三界)가 모두 도통(道通)하여 인간은 지상신선(至上神仙)이 되고, 천지는 선경세계(仙境世界)가 되는 단계이다.

## V. 결론

앞서 살펴본대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실현과정을 논하기 위하여 여러 단원으로 나누어 보았다. 제 II장에서는 도통진경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도(道)와 도통(道通), 그리고 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도(道)란 우주만상(宇宙萬象)의 시원(始原)이며 생성(生成)·변화(變化)의 법칙(法則)을 말한다. 인간으로 말하면 곧 본성(本性)을 가리킨다. 그래서 도통(道通)이란 ‘도(道)에 통(通)한다’는 의미로, 우주본연(宇宙本然)의 상생(相生)의 법칙(法則)을 깨닫고 인간의 본성(本性)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도통진경(道通眞境)이란 ‘도(道)를 통한 참다운 경지(境地)’를 의미한다. 이 말은 지상신선세계(地上神仙世界)나 후천선경세계(後天仙境世界)와 표현만 다를 뿐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 세계는 음(陰)과 양(陽), 신과 인간이 서로 조화(調化)하여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중시(重視)되는 인존시대(人尊時代)를 말한다. 또 선천(先天)에서 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이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늘이었던 것이 후천(後天) 즉,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가 되면 입장이 바뀌어 일을 피하는 것은 하늘이고 일을 완성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게 된다. 또 이 세계는

상극(相克)으로 말미암아 천·지·인·삼계(三界)에 쌓이고 맺혔던 모든 원한(怨恨)이 풀려 상생(相生)이 되는 이상세계(理想世界)를 말한다. 이와 같이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세계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이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하는데, 제 Ⅲ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의 법리는 도통진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前提條件)이 된다.

제 Ⅳ장에서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수도(修道)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수도(修道)의 방법은 상제께서 기초를 마련하고 상제로부터 종통(宗統)을 계승한 도주와 다시 도주로부터 종통을 이어 받은 도전께서 체계화(體系化)하신 것이다. 수도(修道)란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사실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도주께서는 우리의 도(道)는 옛날에도 지금도 듣지 못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도(道)이기 때문에 그 만큼 믿고 닦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수도(修道)는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 추구하는 도통진경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기도(祈禱)·수련(修鍊)·공부(工夫) 등이 있다. 기도(祈禱)는 신앙의 대상에게 기원(祈願)하는 의식으로 평일기도(平日祈禱)와 주일기도(主日祈禱)가 있으며, 수련(修鍊)은 시간(時間)과 장소(場所)에 관계없이 실행된다. 공부(工夫)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지정된 방법으로 실행하는데, 여기에는 시학공부(侍學工夫), 시법공부(侍法工夫) 등이 있다. 시학(侍學) 및 시법공부(侍法工夫)는 도주께서 50년 공부로써 이룩한 광구천하(匡救天下)의 법방(法方)으로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진법공부(眞法工夫)이다.

위에서 살펴본 수도(修道)에는 주문(呪文)이 송독(誦讀)되는데, 이 주문(呪文)은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문(呪文)은 신과 인간의 영적(靈的) 교류를 가능케 해주는 매개체(媒介體)로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에서 사용하는 주문에는 봉축주(奉祝呪)·태을주(太乙呪)·기도주(祈禱呪)·진법주(眞法呪)·칠성주(七星呪)·운장주(雲長呪)·이십팔수주(二十八宿呪)·이십사절주(二十四節呪)·도통주(道通呪)·신장주(神將呪)·해마주(解魔呪)·신성주(神聖呪)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주문(呪文) 중 태을

주(太乙呪), 기도주(祈禱呪), 칠성주(七星呪)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태을주(太乙呪)는 모든 병마(病魔)를 쫓아 준다고 하여,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 또 '흠치(咻哆)'가 후천(後天)을 상징하는 소의 울음소리를 모방했다고 하여 흠치주(咻哆呪)라고도 한다. 기도주(祈禱呪)는 시천주(侍天呪)라고도 하는데, 이 주문은 상제의 진리에 귀의하여 영원히 잊지 않도록 지극한 기운을 받게 해 달라는 염원(念願)이 담긴 주문이다. 칠성주(七星呪)는 도교(道敎)·불교(佛敎)·민속신앙적(民俗信仰的) 요소가 절충된 주문으로서 대순진리회의 독창성이 드러나는 주문이다. 칠성(七星)은 도교(道敎)에서 탐랑(貪狼)·거문(巨門)·녹존(祿存)·문곡(文曲)·염정(廉貞)·무곡(武曲)·파군(破軍), 이 일곱 개의 별을 일컫는데, 상제께서는 서양기운(西洋氣運)을 몰아내는 공사(公事)를 보시던 중 문곡(文曲)의 위치를 바꾸어 결국 칠성주(七星呪)는 탐랑(貪狼)·문곡(文曲)·거문(巨門)·녹존(祿存)·염정(廉貞)·무곡(武曲)·파군(破軍)의 순(順)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삼계(三界)를 주재(主宰)하시는 상제의 무한한 권능을 확인시켜 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수도방법(修道方法)으로서 포덕(布德)과 교화(敎化)가 있다. 포덕(布德)은 상제께서 정하여 놓으신 우주만물(宇宙萬物)의 법칙을 널리 알리는 일이며, 교화(敎化)는 상제의 진리를 알리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포덕과 교화는 서로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양(兩) 개념을 하나의 통합개념으로 전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 보았다. 포덕·교화의 기능적 역할에는 첫째로 선포적(宣布的)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상제께서 대순(大巡)하신 진리를 만천하(滿天下)에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윤리적(倫理的) 기능인데, 사람들에게 사회생활(社會生活)을 하면서 지켜야 할 윤리도덕적(倫理道德的)인 면을 전달하는 기능이다. 세번째로는 치유적(治癒的)인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원리에 따라 모든 원한(怨恨)을 풀고 서로 잘 살아 나가자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원한을 갖지 않음으로써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여 심신(心身)의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네번째 통합적(統一的) 기능으로서 포덕·교화를 통해서 상생(相生)을 바탕으로 서로 화합(和合)·단결(團結)·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마

음을 갖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섯번째는 신념적(信念的) 기능이다. 이 기능은 상제의 진리를 확신(確信)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상으로 도통진경(道通眞境)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前提條件)과 수도(修道)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도통진경의 세계는 인간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아닌 지상(地上)에서의 선경세계(仙境世界), 다시 말해서 가정(家庭)이 화목(和睦)하고 사회(社會)가 화합(和合)하며 더 나아가 전인류(全人類)가 평화(平和)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무한한 희망(希望)을 가져다 준다는데 그 의의(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9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대순진리회요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대순사상논총』 제 3집, 대순사상학술원, 포천 1997

『中庸』, 『周易』, 『大學』, 『書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 15·20·22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서울 1992

『한국불교대사전』,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1982

老子, 『道德經』

莊子, 『南華經』

周濂溪, 『太極圖說』

尹錫山 註解, 『東經大全』, 동학사, 서울 1996

李康五, 『한국신흥종교총람』, 한국신흥종교연구소, 대흥기획, 서울 1992

Ecce Homo, in: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67~1974)